

건축과 조경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 Pyung

머릿글

건축과 조경이란 본래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건축가가 조경을 동시에 수행하는 말하자면 원시적인 토탈디자인(Total Design) 적인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과 조경의 관계를 말하는데 있어서는 태초에 그것들이 발전되면서 같이 관련되어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봄으로써 그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후에 서로 관련상관되는 「Theme」를 찾아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본다면 건축에 있어서의 조경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다소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되어

(I)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

1. 서양의 역사와 조경
2. 동양의 역사와 조경
3. 우리나라의 전통조경

(II) 건축에 있어서의 원론적 조경

1. 자연과 인간과 조경
2. 조경의 사회성
3. 조경계획과 건축

(III) 각론

1. 공업단지 조경
2. 집단주택지 조경
3. 스포츠·레저단지의 조경
4. 도시 재개발지역의 조경
5. 공원과 도시녹지
6. 사적지 조경
7. 기타(학교·병원·종교지역 공공시설 등)

이상의 대략 3개부분과 이를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개해 보고자 한다. 이 분야의 실무에서 20여년간 몸담아 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는 본문이 건축사 제위의 업무에 일호의 조가 되었으면 다시없는 보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I. 역사속의 건축과 조경

1. 서양의 역사와 조경

① 고대에서 중세

신석기시대 이래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원시 아담인의 유랑생활에서 집단농경목축의 정착시대로 안정되고 식량의 지속적인 공급과 축적은 문화의 싹을 키우기 시작하였으며 통치자는 비로소 물질적 부를 축적하여 그들의 토속신앙을 숭상하기 위한 신전을

건립하였고 궁전을 축조하였으며 외적과 자연의 재해로부터 집단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성곽을 축조하게 됨으로써 건축과 조경의 역사는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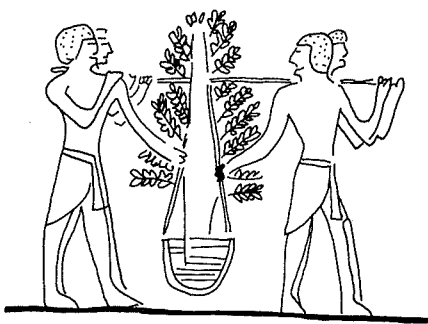
이와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계속되는 동안 인간에 의한 경관의 변화가 진행되었고 신전과 궁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이를 꾸미고 장식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보는 전문성을 가진 조경행위의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 C. 2,000년경 진흙판에 새겨졌던 인류 최초의 기록물인 Uruk의 사제일왕인 Gilgamesh의 대서사시는 건축에 있어서 고도로 발달된 층계의 구조와 거리가 먼 채석장으로 부터 운반된 돌의 가공 건물의 토대에 방수처리를 위한 천연 역청의 사용기록 등 이런것들을 통해 그 당시 발달되었던 건축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유프라테스강변(The Euphrates River)에 번성하였던 수메르(Sumer)인의 수도 Uruk에는 이때 이미 거의 완벽한 관개시설체계가 이루어져 있어 농업과 생활의 용수로 사용되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바빌론(Babylon)의 Nebuchadnezzar 왕의 공중정원(Hanging Garden)은 고고학적 관찰에 따르면 그 정원이 바빌론의 모래 평원에 세워진 수 에이커에 달하는 건축물로서 일종의 옥상정원과 비슷했다고 하며 나무의 뿌리가 잘 뻗을수 있도록 흙을 충분히 얹은 지붕은 속이 빈 원형의 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었고 인근 성곽의 해자(Moat)로 부터 노예들이 물동으로 물을 길어다 주었다고 한다.

나일(Nile)강의 범람은 이집트(Egypt) 삼각주에 기름진 토지를 주었고 강물을 언제나 수문을 갖춘 망상의 운하로 유도하여 강물을 이용한 수목원, 포도원, 채소원 등의 농업이 발달하였고 잦은 범람으로 땅의 유실이 잦음에 따라 축지술이 또한 발달되었다. 이와같은 축지축량술의 발달로 신전의 건설기술 등이 일찍 발달되어 Deir-el Bahari의 신전이 건설되고 신원인(Shrine Garden)이 이때부터 나타났고 스�핑크스(Sphinx)와 피라미드(Pyramid)는 오늘날 까지도 영원히 풀 수 없는 인류의 불가사이이다.

한편 그리스(Greece) 문화를 주도한 에게(Aegean)해 문화는 그레타(Crete)와 미케네(Macenie)의 두 시대를 갈라 놓았음 볼 수 있다.



WORKERS CARRYING INCERSE TREE
FROM THE LAND OF PUNT

그레타의 궁전 건축은 개방적으로 그 시대의 평화스러웠음을 볼 수 있고 미케네의 그것은 성채식위주로서 주위를 폐쇄시킨 Patio를 향해서만 창문이 개방되고 출입문 역시 Patio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B. C 5세기경 페르시아(Persia)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Greece)는 국력이 갑자기 늘어 많은 신전과 성림이 조성되었고 특히 아폴로(Apollo) 신전과 올림피아(Olympia)에 가까운 제우스(Zeus) 신전의 성림은 수많은 조각과 청동제 장식분이 나열되었던 탓으로 그 성림은 청동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의 숲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제우스 신전에서 거행되는 4년마다의 제시는 운동 경기를 개최하는 습관으로 변했고 이것이 동기로서 청소년 체육진흥과 「Gymnasium」 건설이 시작되었다. 집나지움의 주변을 프리타나스로 녹음을 만들어 마침내는 공개된 정원으로까지 발전이 되었고 그곳의 명칭을 Academy 라고 했는데 그것은 Academos 라는 영웅을 위한 경기가 진행되었던 성지에 체육장이 만들어진 연유였다고 하며 그곳에는 프리타나스의 열식수와 「철인의 원로」라고 부르는 관목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해 놓은 오솔길이 있고 여러곳의 제단, 주랑, 정자, 벤취 따위가 놓여지는 한편 그 일부에는 대리석으로 구획된 긴 타원형의 경주로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아테네를 거쳐 흘러 들어온 동방의 문화가 로마에 다달을 즈음 Tiber 강가의 미개한 농경민족이었던 라틴(Latin) 족들은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생각할 정도로 강대해져 있었고 그들은 그때 벌써 콘크리트(concrete)를 사용하여 공공의 건축물을 건축할 정도로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갖게 되었다. 공화시대의 로마는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가 도시를 14개구로 구분하여 건물이 밀집된 제 1지대, 다소 여유가 있는 제 2지대, 그 외곽에는 규모가 큰 저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제 3지대, 마지막으로 시외근교인 제 4지대를 설정하여 제 4지대는 별장을 건설 고대로마 특유의 별장 스타일을 낳았는데 전원식 별장으로서 「Villa rustica」와 도시 스타일의 별장인 「Villa Urbana」로 나눌 수가 있다.

로마에는 이때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이 구축되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많으며 콜로세움, 폼페이(Pompeii) 유적 등 많은 것이 당시 찬란했던 건축문화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림 2).

특히 흥미로운 것은 16세기 「Michelangelo」에 의해 건설된 Vatican의 St. Petro basilica(교회당)은 바로 그 지리가 AD 54~68년 악명 높았던 네로(Nero) 황제가 그에게 아첨하는 소인배들을 위하여 초인적인 규모로 건설하였던 호화스런 정원의 자리였으며 그때 그 정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집트(Egypt) 나일강에서 운반된 방탑탑(Obelisk)가 네로의 곡마 경기장 Spina(중앙분리지)에서 로마의 상징물이었으며 오늘날 「St. Petro」 앞 장엄한 「Bernini」 타원형 광장인 「elliptical plaza」의 초점 구실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인간역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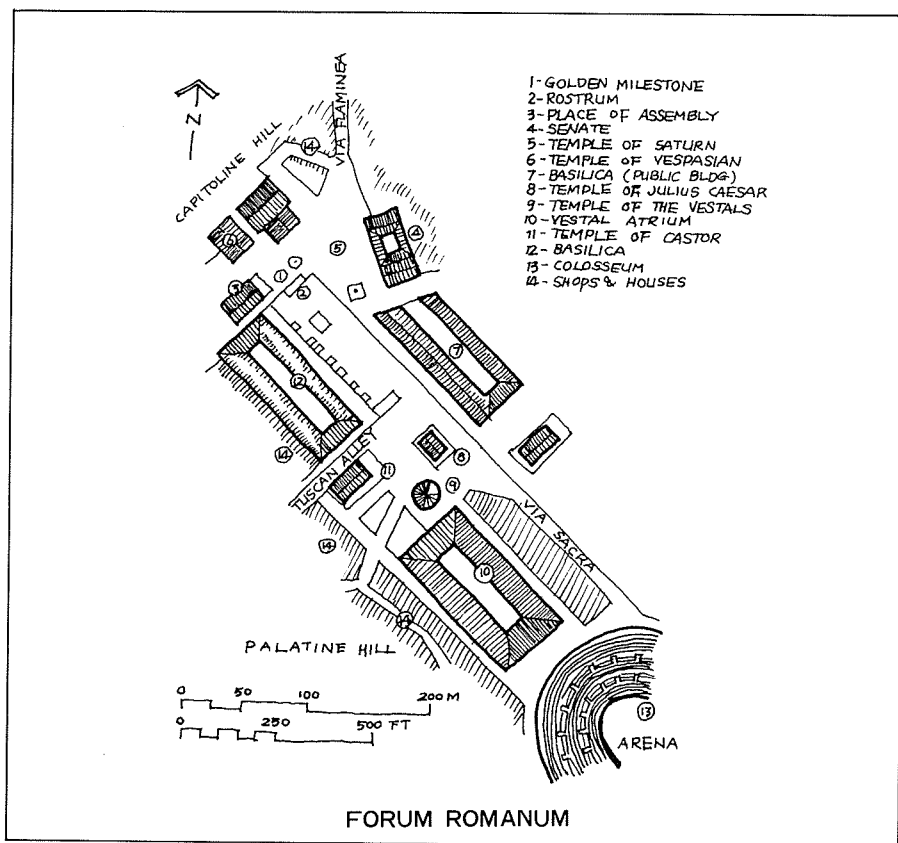
이러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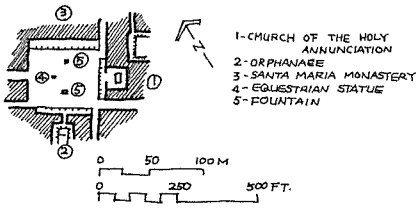
이처럼 많은 경관의 변천은 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동안 로마는 멸망하고 거의 10세기에 가까운 암흑의 역사, 중세가 시작되어 전쟁과 살상으로 얼룩지는 참혹한 인간사가 진행되어 갔다.

인간의 심성은 성곽 속의 생활, 절망의 생활에서 마음의 구원을 위하여 신에게로 귀의하려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로서 기독교 사상이 심화됨으로써 전쟁의 와중에서도 기독교 문화의 싹은 지라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Monastery Garden」이 발생되어 실용적인 정원으로서 약초원, 채소원이 발달하였다. 13세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전란의 위협이 사라지고 향락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한편 십자군 원정의 영향을 받아 성곽의 형태와 구조가 큰 변화를 일으켜 방어개념의 구조에서 호사가들의 주거를 위한 주거의 개념으로 구조가 바뀌어지는 한편 위협적이던 외모는 일반저택에 가까운 것으로 면적도 확장되고 미구간, 과수원, 정원이 조성되는 등 건축과 조경은 항상 밀착되어 15세기말 경에는 성채이기는 하나 완전한 주거용인 성관(Chat eau)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② 이슬람(Islam)의 조경

한편 불모의 사막을 주거지로 삼은 AD 570~632 아라비아(Arabia) 지역에서는 Mahomet이 나타나 이슬람의 교리로서 전





PIAZZA ANNUNZIATA - FIRENZE
(BRUNELLESCHI - 1419-24 A.D.)

Arab을 통일하고 사라센 제국을 일으켰는데 이의 세력이 7~8세기에 걸쳐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북부 아프리카 및 스페인 반도까지 장악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다. 사라센 민족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를 급속히 흡수하여 그것을 자기문화와 융합시켜 독특한 문화를 건설했는데 스페인에서는 동방문화를 잘 살린 그라나다

(Granada)의 Alhambra와 Generalife, 세빌리아의 Alcaraze의 궁원이 그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Spain-Salassen 문화의 한 유산이다. 인도의 고대 정원은 고대 인도쪽에 속하는 인도 아이리안(Aryan) 족이 인더스(Indus)강 지방에 살았으나 뒤에 갠지스(Ganges) 지방으로 이주하여 고대 인도문화의 꽃을 피웠으며 조경 또한 매우 발달하였다는 사실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 Ramayara와 Mahabarata가 전하고 있으나 그 유적은 현재 찾아 볼 길이 없고 역시 사라센의 침공으로 인한 회교왕조 뒤에 일어난 Mughal 왕조(1516-1761)대의 인도-사라센 문화의 소생인 "Nishat Bagh"와 "Taj-Mahal"이 그 대표적인 유물이다.

Nishat Bagh는 캐시미르(Kashmir) 지방의 경관이 수려한 역대왕조의 하계별장지로서 이 지방의 호수가에 자리 잡았다. 정원은 12개의 로단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것이 12궁을 본뜬 것이었다. 산 중복에 구거를 설치하여 Cascade(물계단 장식)를 설치하고 분수대를 곁들여 로단에는 각종의 화초를 심어 아름답게 장식했다고 한다.

Taj-Mahal은 Sha-jahan의 부친 Mum Taj Mahal을 위하여 조성된 영조로서 인도 영조건축의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 높은 아치형 둥근지붕을 가진 문을 들어서면 방형의 심천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과 직각으로 구거가 교차하는 대정원이 전개되며 정원을 바라보면 백색의

대리적으로 건조된 영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연못의 수면위에 비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물의 높이는 9m의 기단위에 69m의 높이로 세워졌는데 지붕은 사라센 특유의 둥근 원탑형이고 네 모퉁이는 첨탑(Minaret)이 자리잡고 있다. 건물이 대칭적으로 꾸며진 것과 같이 조경도 건물의 축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균형 잡힌 극히 단순한 의장으로 꾸며져 있다. 즉, 십자형 구거에 의해서 4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심에는 원정 대신 흰 대리석으로 축조된 아름다운 분천지가 구거보다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는 한편, 너비 5m가 되는 구거속에는 간격 2.5m의 일렬 분천이 장식되어 있다. 이것과 직각으로 중앙 분천지에서 교차되는 또 하나의 구거 역시 같은 수법의 분천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단부는 정원으로서 끝난다. (그림 3)

③ Renaissance 조경

십자군의 원정 이후 교통, 정보, 무역의 발달로 이의 중심지였던 Firenze 지방에는 당시 해군력의 발달로 동방제국과의 무역이 번성해짐에 따라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고 무역과 공업의 번창은 Firenze를 중심한 toscana 지방에 많은 신흥 부호를 탄생시켰다.

중세 암흑시대의 봉건적 종교사회로부터 모든 자원과 정치적 세력이 신흥세력인 지방제후의 손으로 넘어 오면서부터 예술, 문학, 국가 등과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가 종교로부터 인간을 다시 찾는 인문주의 즉 Humanism이 제창됨으로써 고전의 재생과 현상의 신생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Magaravate(독일식 정원)가 11세기 동안 Lombard 공작령이었던 Toscana 지방은 여러 소공화국으로 분열되었다가 Firenze의 Medici 공에 의하여 통일이 되고 Medici가가 이 지방의 제후가 되면서 문학, 예술, 철학자들을 후원, 숭상함으로써 그 주위에는 이들 새로운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도시는 물론 문물 교역의 왕성한 발전이 계속되어 전유럽 지역에 Renaissance를 전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특히 Casimo de Medici는 Brunellsch로 하여금 Santissima Anunziata의 교외에 고아원을 설립하도록 했는데 그 앞에 있던 광장이 오늘날까지 유럽도처에 남아 있는 르네상스 광장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또한 Casimo는 지중해 연안의 특이한 기후로 인한 도시의 여름생활을 피하여 Michelozzo로 하여금 Fiesol의 언덕에 전원적인 별장을 설계하도록 하여 올리브 과수원과 포도원으로 덮힌 평화스런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사유지에 새로운 스타일의 별장을 세우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별장의 장식은 극도로 품위가 있었으나 건물의 디자인은 단순하였는데 어떻게 금세기 초까지 지속되어온 양식이 되고 있으며 형식면에서 볼 때 "고전적 사고"에 상당한 경의를 표한 것이었다. 부지의 결정과 계획은 그 배경에 비해 독특하게 보였으나 당시 건축이론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그림 4)

그 당시 건축이론가 Alberti는 그의 저서 *de re Aedificata*를 출판했는데 Vitru Vius의 저서(기원전 1세기 후반과 기원후 1세기 전반에 Augustus 로마 황제의 토목, 건축, 담당고문이며 이론가인) *De Architectura*의 10권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건축과 부지 선택의 이론을 여기에 다시 열거하였던 것이다. 도시계획 건축자료, 시원과 그리스식 기둥양식, 공공건물과 개인 건물의 실내장식, 급수시설, Chronometer 도구 구조물과 군사용 기계장치 등에 관해 기술해 놓았다.

Alberti는 이 연구 논문에서 지금도 유효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부지계획에 관한 몇개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1. 배수가 잘되는 견고한 토지를 부지로 고를 것
2. 부지의 방향이 태양이 주는 수평 수직, 각도를 고려할 것
3.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바람과 부지와의 관계를 고려할 것
4. 물의 공급이 적절하기를 결정할 것
5. 구조물이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지방의 재료를 사용할 것

이와같은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제 1단계 초기 철학자의 정원에는 물이 나타나지는 했으나 보잘것 없고 축을 중심으로 한 조그만 못이나 샘으로서 알뜰히 사용되었고 15세기초 스페인왕 알폰소 5세는 나폴리에 거주하면서 그곳 정원에 무어인 방식으로(사라센) 물을 시적으로 교묘히 사용하였다.

그후 1549년 Cardinal Ippolito d'Este는 Tivoli의 통치자가 되면서 Sabine 산으로 향한 아름다운 언덕 위에

도시전체를 관망할 수 있도록 별장을 짓게 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Tivoli의 Villa d'Este인 것이다.

건축가 Pirro Ligorio와 수력기사 Olivieri는 Anio강 물을 끌어 들여 매우 효과적으로 교차시킴으로써 놀라움 정도로 간소하고 평범한 이 건물인 궁전을 조경처리의 다양성과 그 규모로 인해서 놀라움과 즐거움 환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었고 방문자로 하여금 주인의 외관상 부와 노력에 겁먹게 하면서도 회열감에 도취될 수 있도록 100여개의 분수, 산책로, 물의 분출, 물안개, 물방울 등 모든 것에 압도당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은 르네상스의 건축과 조경은 항상 같은 맥락에서 취급되어 이태리 지형의 특성에 따른 노단식 별장, 건축과 축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별장, 정원의 조경적 처리기법은 르네상스 초기, 중기, 후기, 바로크식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의 곳곳에서 열화와 같은 사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피렌체 근교의 대표적 별장 조경으로서 「Villa Careggio」 「Villa Cafaggiuolo」 「Villa de Medici」 「Villa poggia caiano」 「Villa Salviati」를 들 수 있다. 중기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Villa Franes」 「Villa d'Este」 「Villa Lante」 「Villa Castello」 「Giardino Boboli」 등이 있으며 특히 이중 “Villa Franes, Villa Lante, Villa d'Este”는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는 로마 3대 별장이라고 한다.

후기는 16세기로 접어들면서 문화의 중심이 Firenze에서 로마로 옮겨져 이태리식의 면모를 완전히 갖춘 찬란한 조경 문화의 꽃을 피웠다.

조경이 최성기를 맞고 있을 이 시기에 건축과 조각은 이미 최성기를 지나 그 영향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바로크(Baroque)식으로 지칭되는 양식으로서 이 양식은 후기에 조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식물재료를 자연의 생김새대로 사용치 않고 수형을 피기하게 변형시켜 인공적으로 교정하여 사용하였다. 후기의 대표적 작품으로서 Villa Lancelotti, Villa Isolabella, Villa Aldobrandini 등이 있다.

이와같이 이탈리아에서 문화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봉건주의와 귀족과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과의 소위 100년 전쟁이 한창 계속되고 있어 혼란스런 무력충돌의 연속이었다. 프랑스도 이후 점차 전쟁이

멋지면서 이탈리아로 부터 불어오는 르네상스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게 되어 프랑시스 1세 이후 궁정과 귀족의 Chateau 등이 정원을 확장하게 되는데 프랑스인은 보수적이어서 전제군주 정치가 절대화된 오랜세월 후에도 성과 해자(Moat)가 존속했고 이것이 종래에는 물을 사용하는 한 양식으로서 발전한다. 이탈리아의 지중해성 기후에 비하여 대서양 기후인 프랑스는 조경설계에 있어 꽃을 이용한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탈리아는 대개 도시국가들이 잡다하게 독립된 데 비하여 프랑스는 강력한 군주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벨사이유(Versailles) 궁전과 같은 엄청난 대단위의 정원을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여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루이 14세왕 Sun King(태양의 왕) 시대에 궁전 정원사의 아들인 Adre Le'Notre는 시공부에게서 미술공부를 사사받은 후 그의 아버지처럼 궁전 정원사가 되었다. 그는 루이 14세 왕을 위하여 Fontainebleau와 Tuileies의 개량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상당한 업적을 쌓았으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루이왕의 신임을 크게 받지 못하여 이태리 여행길에 오르는데 이태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당시 루이왕의 재무장관인 Fouquet의 요청으로 파리(Paris) 근교(48km 지점) Melun에 그의 Chateau인 Vaux-Le Vi Conte(보르비퐁테)를 건설케 되었고 방대함과 아름다움에 시기를 느낀 루이왕은 Fouquet를 투옥시키는 한편 르노뜨르(Le'Notre)를 불러 벨사이유 궁전을 조경하게 했던 것이다.

본래 벨사이유 궁원은 루이 14세 왕의 부왕인 13세 왕의 사냥터였는데 루이 14세 왕의 명을 받은 르노뜨르는 1661년부터 향후 25년에 걸쳐 당대의 역작을 탄생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 궁원은 남쪽 화단말에 감귤원이 제일 처음 조성되었고 거대한 인조의 로단위에 백색의 찬란한 대리석 궁전이 세워지고 양쪽에 두개의 큰 연못을 만들어 그 연못에 궁전을 투영케 함으로써 장관을 이루었고 연못기에는 청동제로된 우아한 조각이 즐비하게 배치되고 로단의 정면 아랫 쪽에 반원형을 이룬 비탈길과 그 전면 중앙에 화단을 결들인 연못이 배치 되어 있고 이 연못으로 부터 주축이 중앙로인 왕자의 가로수 길로 향해 뻗어간다.

벨사이유 궁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지의 주축을 따라 축조되어진 대운하이다. 이것은 정원을 넓게 보이게 하는 한편 저습지의 배수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길이는 1.6km나 되며 두 지류로 분리시켜 십자형이 되게 해 놓았다. 물의 화단 북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라미드(Pyramid) 분천을 비롯 물의 원로 넘프의 연못, 용의 연못, 네프톤의 연못 등이 있고 각기 독특한 형태의 주상들이 반쳐든 수반형 분천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다.

운하의 지류 북단은 Grand Trianon 이라고 하는데 루이 14세 왕이 Montespan 부인을 위해 건조한 트리아농(Trianon) 자궁(寢宮)은 진기한 자궁이었다. 트리아농 중국식 건물로서 루이왕의 동양에 대한 강한 동경심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 정원에는 건물을 구성하는 청색과 백색의 도자기와 조화를 이루도록 다채롭고 진귀한 화훼가 매우 많이 식재되었으며 그 강렬한 향기는 극에 달하였다고 한다. 루이 14세 왕의 빛나는 역사가 끝나고 섭정시대가 되면서 벨사이유 궁전은 크게 황폐되었으나 1749년 풍파루트 부인에 의해 다시 거의 복구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정교하고도 장엄한 벨사이유 궁전은 당시 전 유럽에 파급되어 루이 14세 왕의 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펜부르크, 쾰스부르크의 헬브론 포츠담의 Sans-Souci 비엔나 지방의 쉘브론 궁원, 영국왕실의 Hampton Court, 러시아(Russia)의 레닌그라드, 스칸디나비아 제국 등으로 퍼져 나갔으며 북부 이태리 지역, 남쪽으로는 나폴리(Napoli) 부근의 Caserta에 지방 제후의 정원에도 나타났다.

심지어 미국으로 건너가 조오지 워싱턴(Gorge Washington) 장군의 요청을 받은 Pierre L'Enfant는 워싱턴시의 도시계획에 벨사이유 궁원의 재현을 시도하여 주요축선의 초점은 수직이고 작은 축선은 백악관을 끝에 두고 있다는 점이 뜻깊은 일이다. 많은 산책길은 르노뜨르의 tapis vert(녹색의 카피트)과 같고 거울같은 연못은 옛날의 대운하와 같으며 Lond's point에서 교차되는 대각석 도로형으로서 완전히 르노뜨르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실은 당대 한 사람의 거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미쳤는가 하는 것을 길이 기억되게 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다음호 계속)